

# 日 도쿄 발령 긴급사태 수도권으로 확대 가능성

### 하루 확진 7000명대...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요청 방침 “올림픽 무관중 경기...일정·진행 변화 없을 것” 중도취소 부인

도쿄올림픽 경기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일본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도쿄에 발령된 긴급사태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7629명으로, 하루 확진자 최다를 기록한 지난 1월 8일(7882명)에 근접했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2848명), 가나가와현(758명), 지바현(405명), 사이타마현

(593명) 등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가 4604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바현의 구마가이 도시하토 지사는 전날 정부에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가나가와현과 사이타마현도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발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있어 긴급사태가 발령되더라도 경기 일정 및 진행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을 골자한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다. 그러나 잦은 긴급사태 발령으로 유동 인구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다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중이 커져 도쿄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다. 도쿄도의 전날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1762명으로 전주 대비 49.4%나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올림픽이 개막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쿄도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전날 기준 2864명에 이르렀다. 자택 요양자는 6277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6배로 늘었다. 다만 도쿄도의 요시무라 노리히코 복지보건국장은 백신 접종과 고령자 감염 감소 등을 거론하며 올해 초 “제3파(세 번째 대유행) 정점 때와는 의료 제공 체제에 가해지는 압박이 다르다”고 밝혔다. 고령자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중증자가 줄어 병상 압박이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제5파 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제3파, 제4파 때와 비교해 현저히 줄었다.

요시무라 국장은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요청해 코로나19 확산에 주의를 당부하던 기존 도쿄도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그는 도쿄올림픽과 코로나19 확산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개최식 후 인파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도쿄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한 총리관저 취재진의 질문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감염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대책으로 유동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의 중도 취소 가능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룡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캔턴의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룡은 이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미 애틀랜타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 한인 4명 포함 8명 사망...한인 희생자 재판선 사형 가능성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 총격범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 별건으로 기소된 상태라 추가로 사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총격범 로버트 애런 룡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4명의 총격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행된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법원은 이날 4명의 살인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을 확정했다. 룡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모두 8명을 총격 살해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 등 4명을 총으로 쏘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후 아시아계 여성을 향한 증오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비판론이 거셌지만, 체로키 카운티 검찰은 룡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반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과정 및 성중독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는 소상히 답했다. 그는 “범행 장소를 방문해 화장실에서 총을 꺼낸 후 쏘기 시작했다”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백지상태였다”고 말했다. 룡의 변호인 재커리 스미스 변호사는 “풀턴 카운티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최후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유죄 인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룡의 의지”라고 말했다. 앞으로 룡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룡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 美 “마스크 다시 써라”...변이 확산에 지침 변경

### “백신 접종자도 실내서 마스크” 연방기관 백신 의무화도 검토

미국에서도 결국 ‘마스크 쓰기’ 지침이 부활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주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되살린 데 이어 27일(현지시간) 미 CDC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기존 지침을 반복하는 새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CDC 지난 5월 마스크 해제 지침을 발표한 지 두 달여만, 또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이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로셀 웰렌스키 미 CDC 국장은 이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가을 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은 물론 교사,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는 권고도 내놨다. CDC는 앞서 지난 5월 13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실내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마스크 쓰기 지침을 되살린 것이다. CDC는 28일 이런 내용의 새 권고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27일(현지시간) 마스크를 쓴 시민이 디즈니 스토어에 입장하고 있다. 로셀 웰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교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CDC 자료가 공개된 이날 오후, 백악관 직원들과 출입 기자들에게 28일부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백악관은 연방 기관 직원에게도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증명서를 의무화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쓰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보훈부는 지난 26일 연방 기관 중 처음으로 소속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GM·포드 등 마스크 쓰기 지침을 제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최근 5만6천명대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 여름 고온건조 심화...남유럽 전례없는 산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올 여름 산불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이재민을 양산했다. 환경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사르데냐 섬은 27일(현지시간) 현재 추정되는 산불 피

해 면적이 2만 헥타르에 달한다. 앞서 사르데냐는 대규모 산불 진압을 위해 7500명의 소방인력과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투입했다. 장비가 모자라 이웃 프랑스와 그리스 정부도 이탈리아에 4대의 화재진압용 항공기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화재가 진압됐지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피해 복구 자금을 요청했다. 사르데냐 지방정부는 이

번 산불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난 26일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25-26일 전국에서 5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1700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불탔고, 카스티야 라만차 지방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2천500헥타르 이상이 재로 변했다. 최근에 큰 산불 피해는 없었지만, 포르투갈도 매년 대규모 산불로 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